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고민하는 계기되길”

2급 3급 승가고시 시행
 설법시연, 주관식 도입

 승납 25년 이상 1급 고시
 종단 최초 내년 4월 시행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 스님)는 지난 10일 김포 중앙승가 대학에서 출가한지 20년 이상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 2급 승가고시를 치렀다. 특히 올해는 논술 외에 설법시연분야가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한 88명의 스님 가운데 27명이 설법을 선택, 30%의 지원율을 보였다.

2급 승가고시는 승납 20년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2급 승가고시 합격 후 대덕 법계를 풀수하면 총무원 부실장, 종단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소임을 맡는다. 종단의 지도자가 될 스님들이 응시하는 2급 승가고시는 그동안 논술과 면접으로만 치러지다가 올해 처음으로 설법시연분야가 추가됐다. 스님들이

승단의 지도자로서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는 교육원이 지향하는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기도 한다.

설법시연은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직장인, 공무원, 일반불자, 환자 및 임종환자 등 설법 주제와 대상을 선택해 미리 제출한 설법문안을 토대로 10분간 법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심사는 고시위원 스님 3명으로 구성된 설법평가위원 외에도 김포불교대학 수강생과 포교사 등 10명으로 이뤄진 청중평가단이 맡았다. 평가위원과 평가단은 응시 스님

의 설법을 들으며 △감화력 △설법 주제의 부합도와 논리성 △경전 활용도 △표현력 및 설법자세 등 4가지 기준을 놓고 점수를 매겼다.

스님들의 설법시연을 지켜본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은 “포교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설법능력”이라며 “설법시연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님들이 조리 있게 법문하는 법을 익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승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스님들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출가한

지 10년 된 비구 152명과 비구니 141명 등 총 293명이 응시한 가운데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됐다. 올해는 새롭게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신설된 것 외에 비구, 비구니 스님별로 나눠서 치러진 예년과 달리 한 날한시에 진행되고, 논술시험 채점을 위한 모범답안이 마련돼,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2급 3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오는 15일 발표된다.

한편, 고시위원회는 종단 사상 처음으로 1급 승가고시를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1급 승가고시는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 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스님

을 대상으로 한다. 1급에 합격해 종덕 명덕법계를 풀수한 스님은 교구를 대표하는 본사 주지와 종단의 수계를 관장하는 계단위원 등의 소임을 맡을 수 있다.

1급 승가고시는 논술, 설법 등 고시 대신 대덕 혜덕 법계풀수 이후의 수행 및 포교활동 이력과 향후 수행 계획을 점검하는 갈마를 통해 평가된다. 이를 위해 고시위원회는 승납 30년 이상, 선교율 중무행정분야를 대표하는 비구 스님 8명과 비구니 스님 2명 등 10명으로 ‘심사갈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포=어현경 기자



올해 2급 승가고시에서는 처음으로 설법시연분야가 도입됐다. 사진은 설법평가위원과 청중평가단 앞에서 법문을 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민주본 15일 월례강좌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으로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이 접쳐지는 가운데, 북한 대외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강좌가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는 15일 오후6시30분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 4강의실에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8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 대화 분위기 조성과 군사 행동의 병행 등 최근 대외정책의 흐름과 변화 양상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북한 대표단 방문의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서도 고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본은 지난 9월27일부터 30일까지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 순례를 실시했다. 2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순례에는 민주본 사무총장 진효스님 등 41명이 참가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계 사회적 기업 활성화 한다”

‘날마다좋은날’ 16일
 조계사 경내서 박람회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나눔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오는 16일 오전10시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불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불교사회적경제기업 박

람회는 불교계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홍보와 판매를 돕자는 취지다. 45개 불교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1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주)나눔가게도들이, 다올한지인형(주), ㈜대원효도림, 디자인위, ㈜비전엔, 속초법륜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피프틴 핸드, 한국국제전승협회, 한국생활도하우스, ㈜해피마중물 등이다.

홍보 제품으로는 한지 및 자개공예상품, 민화로 만든 전통문화상품, LED관련제품, 전통젓

갈, 업사이클링제품 등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한지인형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확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언 본부장은 “불자들에게 불교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알리고 보다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종단운영 책임있는 주체”
 불교광장 정책자료집 발간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 불교광장이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자료집 <대중공의>를 발간하며 책임 있는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광장은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6대 중앙종회 운영기조와 쇄신안, 7대 종책기조가 담긴 자료집 ‘대중공의’를 발표했다. 이날 불교광장 회장 지홍스님 등 임원진은 발의안건 회기 내 처리, 의원평가제 실시, 중앙종회의원 특권면제 등을 종회 운영기조로 삼고 원칙에 충실한 대의기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밝혔다.

또한 △대중공의 갈마제도에 충실한 종단 제도의 혁신 △전문직 종회의원 선출 △대중 청원제도의 활성화 △사부대중 평등화를 위한 입법활동 △미래위원회 설치 활동 △종회의원의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종회 운영 쇄신안도 발표했다.

허정철 기자 hje@ibulgyo.com

“내년 세계무차대회 IBC 공식초청”
 총무원장 자승스님, 라마롭상 사무총장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일 인도 최대 불교단체인 아쇼카미션의 회장이자 국제불교연맹(IBC) 사무총장인 라마롭상스님<사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라마롭상스님은 이 자리에서 “인도의 불교성지 복원을 위한 단체인 IBC는 인도 정부로부터 가장 중요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현재 스리랑카에 지부를 설립할 계획이고 한국에도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방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제 종정예하로부터 내년에 열릴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의 초청을 받았고, 흔쾌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예방한 키쇼 국제불교연맹 상임이사는 “내년 IBC 총회에 조계종 대표단이 참석해 성지 복원, 순례 등을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인도, 네팔 성지순례에 진제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초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도 IBC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무차대회에 IBC를 공식 초청하며, IBC 행사 참여와 성지순례 초청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이워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IBC는 인도 내 불교성지복원과 불교발상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창립됐으며 진제 종정예하가 공동 증명으로 총무원장 스님이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다. 인도 중앙정부 불교부 장관을 역임한 라마롭상스님은 당시 인도 아쇼카미션 회장으로 IBC 창립을 주도했다. 현재 IBC 사무총장과 세계불교승가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e@ibulgyo.com



지난 7일 제3기 장학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스님들. 왼쪽부터 성본, 계호, 원명, 원학, 총무원장 자승스님, 보광, 무애, 정도스님.

제3기 장학위원회 출범 위원장 보광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 등 제3기 장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오는 2016년까지 2년 동안 장학위원회를 이끌 제3기 위원은 제2기에 이어 위원장을 맡은 보광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법진스님, 서울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경산 선본사 주지 성본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미산스님, 서울 포윤사 주지 무애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 용인 화운사 주지 선일스님과 당연직인 교육부장 정도스님 등 11명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은 국내외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학비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잘 선정해 종단 발전을 이끄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위원장 보광스님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부는 물론 평소 생활태도까지 평가로 삼는 등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졸업 후 종단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 제정 공포된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따라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60여 명의 스님들에게 3억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종단 인재양성에 앞장서 왔다.

허정철 기자 hje@ibulgyo.com

사부대중께 참회 드립니다

수행과 전법에 진력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사부대중께 삼가 예를 올립니다.

제방의 스님들과 사부대중께 성주사 문제로 인해 종단적 물의와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참회 올립니다. 더불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스님과 교구장 수불스님이하 대중 스님들께 문중의 화합과 중무질서를 훼손한 저희들의 허물과 무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참회 드립니다.

저희 문도가 어른스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문중화합과 교구 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대중스님들의 이해를 구하며 이 번 일을 계기로 자기성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가는 화합의 공동체인데 그 중요한 일원인 저희들이 성주사 문제를 다만 소수자의 입장에서 취한 행위라 하더라도 파 화합으로 비춰지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해문도는 대중의 용서와 자비심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빛을 갚는데 일로 정진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듬어주신 성주사 신도님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미안함과 감사를 드리며 맑은 수행과 불퇴 전법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도들은 이제 성주사를 범어사 교구 공찰의 공명성을 가장 빠르게 실천하는 수범사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일심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따뜻한 자비심과 화합으로 이끌어 주고 기회를 주신 제방의 스님들과 범어사 교구장 수불스님께 다시 한 번 참회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승가공동체의 복원과 금정총림 범어사 교구의 발전 및 대중화합을 위해 저희 문도가 숭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범어사 서해 흥교 문도 일동 합창